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	2026. 10. 15.(목) 11:00 10. 16.(금) 조간	배포	2026. 10. 15.(목) 06:00

농촌진흥청 심의 거쳐 단미·보조사료 15종 추가 등록

- 사료공정심의위원회, 제조 과정·성분·안전성 관련 자료 등 검토
- 단미사료 사용 물질 4종·보조사료 사용 물질 11종 추가
- 사료업계, 품목별 기준·규격 따라 제품 제조에 활용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미·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5종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.

단미사료는 가축에게 그대로 먹이거나 여러 재료를 섞어 배합사료를 만들 때 쓰는 사료다. 보조사료는 사료에 더해 품질을 유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쓴다.

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4종과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종이다.

단미사료로 추가 등록된 물질은 노티드랙, 산양삼, 스키조키트리움 오일, 보호발효대두박이다. 보조사료로 추가된 물질에는 비타민 B1-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포함됐다.

사료업체는 각 물질에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확인해 제품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.

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물질의 제조 과정, 성분 분석 결과, 유해 물질 관련 자료와 보관 기준 등을 살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한다.

국립축산과학원은 심의 결과와 기준·규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,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등록 내용을 공고했다.

추가 등록 물질의 전체 목록과 사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) '알림소식→ 공지·공고'에서 공고 번호 제2026-152호, 제2026-267호, 제2026-339호, 제2026-507호로 확인할 수 있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"새로운 물질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."라며 "앞으로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심의해 사료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 범위를 넓혀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붙임. 2026년도 신규 등록 사료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	책임자	과 장 이성대 (063-238-7450)
		담당자	연구사 박설화 (063-238-7453)
	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		

붙임 2026년도 신규 등록 사료

연번	원료명	구분	공고번호 (농림축산식품부)
1	노티드랙	단미사료	제2026-152호
2	산양삼	단미사료	제2026-152호
3	스키조키트리움오일	단미사료	제2026-267호
4	황색포도상구균 박테리오파지	보조사료	제2026-267호
5	보호발효대두박	단미사료	제2026-339호
6	비타민B1-2인산염 (치아민 피로인산염)	보조사료	제2026-339호
7	L-세린	보조사료	제2026-339호
8	L-아스파트산	보조사료	제2026-339호
9	L-알라닌	보조사료	제2026-339호
10	L-티로신	보조사료	제2026-339호
11	L-페닐알라닌	보조사료	제2026-339호
12	L-프롤린	보조사료	제2026-339호
13	L-시트룰린	보조사료	제2026-507호
14	3'-시알릴락토스 소듐염	보조사료	제2026-507호
15	6'-시알릴락토스 소듐염	보조사료	제2026-507호